

# 민주 “日외교 청문회, 국정조사...국민 연계 총력 대응”

### 최고위, 연석회의 등 연쇄 진행 합동청문회, 국조, 입법 등 예고 3자 변제 무효, 대화 공개 요구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행보 등 대일 외교 관련 합동청문회,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 대응에 더불어 대국민 연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22일 최고위원회의와 윤석열 정부 대일본 굴욕외교 저지 연석회의를 연쇄 개최해 대일 외교 관련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먼저 최고위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 반성과 사과를 했다’는 윤 대통령 발언을 상기하고 “아베 전 총리 담화도, 일본 자민당 우의 의원 발언도 아닌 국민 앞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라고 개탄했다.

또 “역대 어느 정부, 대통령도 일본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내놓고 퍼주기 외교를 한 전례는 없다”며 “위안부 합의로 지탄받은 박근혜 정부조차 일본의 사죄, 반성은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비정상 회담을 둘러싼 의혹 책임 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합동청문회를 국정 조사와 함께 빠른 시일 내 실시할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부할 경우 다른 야당과 신속 추진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강제동원 3자 변제란 씻을 수 없는 죄를 남기기 전 바로잡을 법률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외 정청래 최고위원은 “일본이 진정 반성, 사과 의향이 있다면 강제동원 배상금은 왜 부정하냐”라며 “윤 대통령의 유채이탈 화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국민 가스라이팅”이라며 “정말 대통령이 아닌 용산 총독이라 착각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연석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

격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 자존심을 땅바닥에 치박아버린 정상회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백번 양보해 한일 관계 복원에 대한 순수한 의도를 인정하든 쳐도 무슨 일을 벌인 건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한일 간 최대 갈등 현안들에 대해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기는커녕 일본의 압박만 받고 왔으니 앞으로 국민 뜻에 맞게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란 지위를 이용해 국가 존망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만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3자 변제안 무효, 한일 정상 대화 공개, 강제동원·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독도 문제·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관련 일본 측 조치를 요구했다.

나아가 “이런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당 산하 각급 위원회를 연계해 국민과 함께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석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또 사과하란 말이냐는 태도를 취하는 가해자가 하는 사과가 진짜 사과겠냐”라며 “국가 자존심을 훼손



한 굴욕적 방일 외교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원장을 맡은 고민정 의원은 독도, 위안부 문제 언급 논란을 두고 “일본 말이 아닌 한국 정부 말을 믿고 싶다”며 “합당한 조치를 취해 믿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

또 “정부여당은 일관되게 논의된 적도 없는데, 이는 답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상응하는 답변을 일본 측에 윤 대통령이 전했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일 간 문제를 그랜드 바겐 방식으로 해결한다 했는데,

이게 그랜드 바겐인가”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국민과 야당의 문제 제기는 걸림돌 취급을 해버리고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세력으로 폄훼한다”며 “앞으로 결집해 전방위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안보 대책위원장 이인영 의원은 군사적 한일 밀착, 독도 문제 등을 짚고 “사법 주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에 이어 영토 주권과 군사 주권까지 일본에 내주는 정부가 되진 않길 바란다”고 우려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장을 맡은 위성곤 의원은 “후쿠시마산 어류 수입 요청,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입방출 못했다”고 비판했다.

최이슬기자

## 서동욱 의장, “전남, 글로벌 관광 메카로 도약하길”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 ‘전남 방문의 해 서울페스티벌’ 참석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이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라남도 방문의 해 서울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2년차를 맞아 봄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됐

으며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초청 인사와 출향 지역민, 서울시민 등 1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치러졌다.

해외관광객 유치 전남 여행상품 운영 업무 협약과 순천국제정원박람회 등 4대 대형행사

홍보영상 상영, 인플루언서 ‘영국남자’가 참여한 홍보단 출정식,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서 의장은 “전남은 역사와 문화, 자연, 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보유한 매력적인 곳이다”며 “올해는 4월에 개최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부터 국제수목비엔날레와 전국체전, 국제농업박람회와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까지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고 말했다.

이어, “섬과 바다, 갯벌 등 아름다운 자연과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한 전남에 꼭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며 “전남도의회에서도 방문객들이 전남에서 힐링하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도는 행사가 진행되는 22일까지 광화문광장 육조마당에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행사 정보와 전남도내 관광지와 축제, 고향사랑기부제, 귀농·귀촌 정책을 소개하는 관광홍보관을 운영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 광주시 공공기관 회계 투명 강화 조례 제정

김용임 의원 발의, 22일 본회의 통과



광주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이 22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용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은 정산에 따른 반환 의무가 없어 남은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 의회에 보고 없이 사용 중”이라며 “공공기관 통폐합을 앞두고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해 공공기관 위상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 광주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출연·전출금과 위탁사업비에 대해 정산 후 예산을 반납토록 하고,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산 결과를 받아 점검하고 회계 처리 개선과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시의회는 2023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공기관들이 남은 예산을 시에 반납하지 않고 해를 넘겨 사용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할 대표적 관행 중 하나로 지적했다.

이에 본예산에 편성됐던 출연금 중 순세계 잉여금 30억 원이 삭감 조치됐고, 각 공공기관은 원칙에 맞게 운영비를 편성한 후 부족예산은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설립 목적은 시민들의 복리와 편의 증진”이라며 “공공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돼 시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용규, 안평환, 임미란, 이명노, 홍기월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재환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